

전일본 홀스타인 공진회 및 북해도 낙농목장과 유관기관을 돌아보고(Ⅱ)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 차장 정진무



(1월호에 이어 계속)

4. 북해도 낙농목장경관

일본의 유우사육두수는 약 210만두로서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북해도에 87만여두가 5개 사업지구로 분할되어 광활한 초지와 사료포에서 생산된 풍부한 조사료 위주로 사육되고 있었다.

북해도 낙농역시 UR에 의한 수입개방으로 초유폐기의 가격이 15~6만엔에서 7~8만엔으로 50% 이상 떨어졌으며 초임우의 가격도 20~25% 떨어진 45만 엔 정도로 떨어져 목장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북해도의 경우 소값하락으로 보통규모의 목장에서 년간 300만엔, 큰목장에서 500만엔 이상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나마 판매도 본주의 농기들이 단기착유후 도태를 많이 시켜 송아지 판매는 그런대로 잘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농가의 소득이 줄어듬에 따라서 80두 경영으로 운영을 하던 농기들이 100두 이상으로 사육규모를 늘려야만 경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1) 사양관리

대부분이 북해도 목장은 추운날씨 탓인지 우사의 천장이 낮아보였으며 우사 2층에는 보온을 겸한 건초창고로 이용되어지고 있었으며 송아지부터 육성우 시절까지는 농후사료를 거의 급여치 않고 양질의 건초를 무제한 급여 하므로서 위의 발달을 도모하고 비유조직을 발달시켜 착유시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있었다.

구로자와 목장의 경우 200여두의 사육규모에 75두의 착유두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305일 평균산유량이 10,000kg 이상으로 높은 산유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밖의 대부분 목장들도 9,000kg 이상의 산유능력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목장들이 농후사료 비가 유대의 10% 수준에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40~50% 수준과 비교할 때 마냥 부럽기만 하였다.

2) 번식 및 개량

북해도의 번식과 개량의 중점은 연산성과 장수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초임 수정을 17~18개월령에 400kg 이상 시정 시키므로서 체구의 발달을 크게하여 생애 유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북해도의 대부분의 경산우들은 700kg 이상의 체중을 유지하고 영양상태가 매우 양호하였으며, 개량은 우리와 같이 혈통의 등록과 심사, 산유능력검정에 대부분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정액을 선정 철저한 계획교배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개량의 중점은 유방의부착, 뒷유방, 뒷다리등 후구의 개량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두당평균 1,000kg 이상의 고능력우들을 어떻게 1년에 한번씩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느냐다.

우리의 경우 고능력우들의 번식관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4,000~5,000kg 이상의 고능력우들을 어떻게 적기에 수정을 시키느냐가 우리 방문단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하나의 기우였다. 그곳의 농가들은 충분한 운동과 양질의 조사료 위주의 사양으로 번식에 큰 어려움 없이 고능력을 관리하고 있었다.

3) 시설관리

북해도의 낙농은 거의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대를 이어 운영되는 목장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시설은 최신식이 별로 없으며 계류식우사에 파이프라인 시설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에 와서 최신시설로 바꾸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 역시 기존시설을 바꾸려면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의 경제연한을 다할 때 까지는 교체가 어려운 설정으로 있으며 그나마 짧은 후계자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시설을 교체하거나 아예 목장을 이전하면서 최신시설을 갖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4) 북해도 낙농가의 UR대처방안

북해도 농가들 역시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값하락과 유제품 수입으로 목장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량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유질의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었다.

북해도의 우유 납유량은 5년전부터 철저한 쿼터제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목장을 폐업 할 경우 쿼터 납유량은 조합에 반납되어 조합원에게 골고루 배분되고 있으며 신규농가는 조합심의회에서 반납 납유량증에서 일부를 배정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한 쿼터제에 의해 수급과 조절이 가능하며 개량을 통해 경영 합리화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 역시 유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나 시유 만큼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고품질의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유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유질향상을 위하여 일본은 우유 1cc에 세균은 400만이하, 체세포 30만이하로 법을화 되어 있으며 실제 90%이상의 농가는 1cc당 세균수 30~50만이하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선하고 질좋은 우유의 생산을 위하여 유대의 가격도 단백질 함량과 세균수, 체세포의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고 있으며 체세포가 30만이 넘을때는 유대를 1kg당 3~4엔의 가격차를 두고 50만 이상 일때는 이에 납유를 받지 않아 신선한 우유의 생산을 유도하고 있었다.

표 14. 日本 본주의 낙농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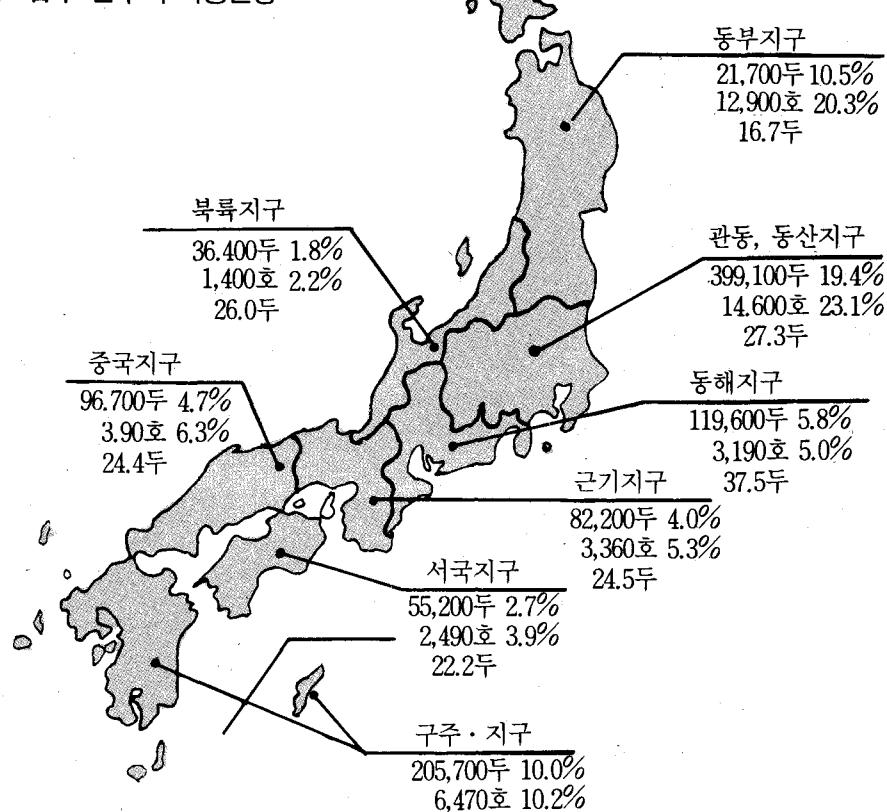


표 13. 일본의 우유 생산량

구 분	북해도		북해도이외		전국계	
	생산량	전년비	생산량	전년비	생산량	전년비
1985년	t 2,495,680	% 103.9	t 4,704,720	% 100.4	t 7,200,400	% 101.6
1986	t 2,639,170	% 105.7	t 4,796,700	% 102.0	t 7,435,870	% 103.3
1987	t 2,616,980	% 99.2	t 4,743,890	% 98.9	t 7,360,870	% 99.0
1988	t 2,663,320	% 101.8	t 4,764,100	% 100.4	t 7,427,420	% 100.9
1989	t 2,798,550	% 105.1	t 4,919,040	% 103.3	t 7,717,590	% 103.9

표 15-1 북해도 낙농현황(1990. 2)

북해도 합계

소두수 847,400두 100%
농가호수 15,000호 100%
농가평균 56.5두

본소지구
103,600두 12.2%
2,760호 18.2%
37.5두

도북사업소지구

139,600두 16.5%
2,490호 16.6%

56.1두

북견사업소지구

125,100두 14.8%
2,400호 16.1%
52.1두

도동사업소지구

284,900두 33.6%
4,030두 26.9%
70.7두

십승사업소지구
194,200두 22.9%
3,320호 22.2%
58.5두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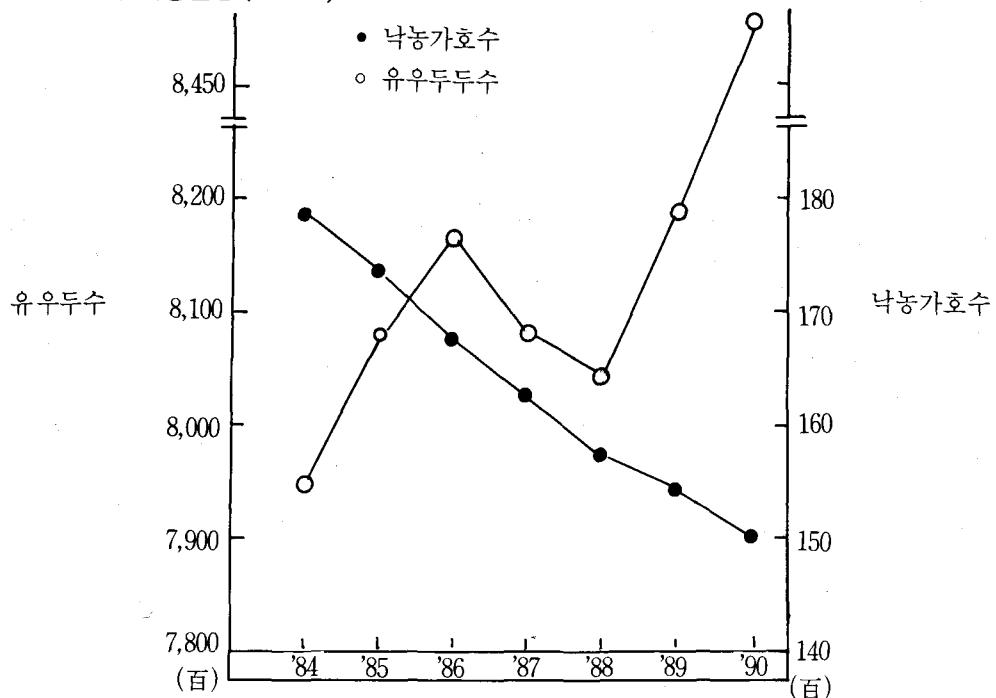
일본인의 협동 단결력은 정말로 경제대국답게 막강하였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도 정부, 단체의 법령, 규정이 모두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으며

오로지 농민을 위하여 모든 행정부서 관련단체가 있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떠한 직위 어떠한 장소에 있건 자기가 믿은 모든 일에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우리 시찰단의 마음에 일에 대한 고마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표15-2 북해도의 낙농현황(1990. 2)



유 우 두 수	7,948	8,079	8,162	8,082	8,043	8,193	8,476
낙농가 호수	179	174	168	163	157	154	150
1호당 평균두수	44.4	46.2	48.6	49.6	51.2	53.2	56.5

우리 농가들도 국제개방화시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살고 국가가 살수 있는가를 남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먼곳이 아닌 가까이에서 찾아 묵묵
히 열심히 일할때 우리의 낙농도 더욱 발전 되리라
고 생각 해보는 바이다. 끝

젖소개량 홍보 표어

**근친고배 방지하여
능력향상 이룩하자**